

케빈 E. 프레데릭 박사, 발도파, 강의 1B, 발도의 개종의 뿌리(서기 1172-1207년)

© 2024 Kevin Frederick 및 Ted Hildebrandt

이 분은 발도파의 역사를 가르치는 케빈 프레데릭 박사입니다. 이것은 1차 세션, 발도 개종의 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빈 프레데릭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발데스에 있는 발덴시안 장로교회의 목사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거의 10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 역할의 일환으로,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이 교회가 배경에서 끌어온 위대한 풍부한 유산 때문에 발덴시아 사람들의 역사를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한 진정한 감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 회원의 50% 이상이 발덴시아 출신입니다.

그 관점에서, 저는 발덴시아 역사에 대한 여러 설교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발덴시아 운동의 창시자인 피터 발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를 발도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프랑스어로 발데스였고, 그는 이 운동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누가복음 18장의 성경을 읽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월도가 인용한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성경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통치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십니까? 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당신은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랜 세월을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숙고하면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자주, 그들이 삶을 살기로 선택한 방식은 그날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주신 답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토라의 계명을 이행하기 위해 성경적 지시를 적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서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시대나 어느 시대에도 이 지시를 그대로 따른 사람은 많지 않다. 너무 완전하고 요구적이어서 완전한 복종이 필요하다.

이것은 12세기의 월도라는 사람이 시작한 운동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경의 명령에 직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문자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12세기 후반 프랑스 리옹의 상업 무역에서 재산을 모은 부유한 상인인 월도, 프랑스어로 발데스는 또한

가톨릭 교회에 헌신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부유한 시민이자 사업가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인 월도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리옹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 리옹은 12세기 프랑스에서 문화적이고 번영하는 사업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의 지역 중심지였으며, 자체 주교가 있었습니다.

월도가 가난한 삶을 살기 위해 신앙을 개종하기 전 몇 년 동안, 월도는 라틴어에 능통한 교회 지도자 두 명에게 그 지역의 공통 언어로 성경의 일부를 번역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월도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12세기에 그런 요청은 흔치 않았고, 비교적 모호했기 때문에 가톨릭 위계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월도가 성경의 일부를 모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교회 위계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고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월도는 이 번역된 경전을 연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의미를 자신의 삶에 적용되는 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12세기에 월도가 자신의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소유물을 나눠주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세기의 누군가보다 훨씬 쉬웠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2세기에는 자선 외에 사회적 안전망이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정부와 비영리 서비스가 합쳐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제공 됩니다 . 월도 가 내린 결정은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이든 절대적으로 큰 신앙의 도약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월도의 삶과 개종에 대한 대략적인 역사적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참고점을 제공하는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1172년에 프랑스와 독일에 영향을 미친 심각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기상 조건으로 인해 파괴적인 기근이 발생하여 특히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월도는 상업에서 재산을 모았고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1072년 5월 27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발데스, 월도는 일주일에 3일 동안 빵, 수프, 고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구호품을 주었습니다. 그해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그는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며 마태복음 6장에서 아무도 신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유한 상인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본 구경꾼과 친구들은 그의 정신 건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돈과 창조에 노예로 삼은 적들에 대한 복수로 정당화했다고 하며, 또한 청중들에게 부모라는 신을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그의 친구들과 사업적 접촉자들, 그의 아내를 포함하여, 그는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유한 생활 방식과 생활 방식을 매우 중시하는 그의 아내는 필사적으로 그가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려고 했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그와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월도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는 월도와 그의 가족 사이에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월도가 자신의 재산과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하기 위해 할당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베푸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따르기 위해 월도는 자신의 가족과 거리를 두었고, 사실상 이혼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삶의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들을 깊이 돌보았습니다. 제자로서의 그의 부름이 이제 그의 주된 초점이 되었습니다. 문맹이 대부분인 사회에서 구전 전통은 그 역사의 보존과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2세기 유럽은 90% 이상이 문맹이었습니다. 부유층과 지배 계층만이 교육의 사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스토리텔링, 시, 긴 발라드가 사회 내에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월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구두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급진적인 변화였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언어가 인구의 1%도 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언어인 라틴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월도가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처음에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월도의 사역의 효과는 로마 가톨릭 교계에 위협으로 여겨졌고, 월도의 추종자들과 그들의 성경에 대한 공개적인 선포를 비난했습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리옹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불렸고, 1184년에 파문당했습니다. 나중에 1215년에 그들은 이단자로 비난받았습니다.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박해는 교회에서 점점 더 조직화되었고, 14세기에는 로마 가톨릭이 이단과 그 추종자들을 모두 파괴하기 위해 십자군을 일으켰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이 기간 동안, 1172년 프랑스와 독일에 영향을 미친 기근을 둘러싼 사실적 데이터를 대체한 월도의 개종을 둘러싼 세 가지 별도의 신화가 월도 공동체 내에서 등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대체로 잊혀졌지만, 월도 공동체에서 서유럽 전역에 등장한 신화는 1172년 리옹 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근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월도의 대응에 대한 기억을 해석하고 보존했습니다.

역사가이자 발도파인 조르조 투린은 1980년에 발도파 목사이자 역사가인 발도파인, 최초의 800년의 저자로, 발도파의 개종을 둘러싼 세 가지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발도파 사람들의 역사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이러한 스토리라인을 각각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발도파 운동의 기원과 초기 역사의 대부분을 둘러싼 유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독자는 발도파 역사의 창조에서 신화가 맡았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발도파 운동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신화 창조의 역할을 다루는 후속 설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은 큰 박해의 시기에 발도파 사람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결의를 확립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모두 지난 세기에 발굴된 역사적 사실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흥미롭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모두 발도의 삶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미사 후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 위해 멈췄을 때, 월도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노래하는 음유시인을 듣고, 그는 류트를 연주했습니다. 음유시인은 귀족 가문의 부유하고 버릇없는 아들인 성 알렉시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불렀습니다.

결혼식 밤, 부와 호사스러운 생활 방식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인 알렉시스는 신부를 떠나 성지로 순례를 떠나 속죄하기로 갑자기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박탈과 고통의 삶의 결과로 그는 너무 흥취해져서 몇 년 후 고향 도시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집 없는 버림받은 사람으로 버림받은 그는 마을의 계단 아래에서 홀로 죽어갔고, 아무도 그가 죽은 후까지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월도는 이 음유시인의 노래에 너무 감명을 받아 음유시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먹고 밤을 지냈습니다. 다시 노래를 듣고 월도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전의 사치스러운 삶을 포기하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12세기에는 유럽에서 여행하는 음유시인, 즉 트루바두르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들이 마을에서 마을로 음악과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사상과 심지어 새로운 말투를 퍼뜨렸고, 이는 부유층과 상인 계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유시인들의 노래에서 전달되는 주요 주제 중 하나는 긍정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이었는데, 이는 관계와 결혼에서 공개적으로 의례화된 사랑의 표현의 역할을 높였습니다. 긍정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은 결국 사회에서 그 시점까지 존재했던 것보다 더 큰 수준의 기혼 부부 간 평등을 촉진했지만, 또한 미혼 여성의 역할을 무시하고 종속시켰습니다.

남녀 관계 속의 성적 암시와 드라마 역시 음유시인의 음악 주제였다. 월도의 생전에 음유시인들이 인기를 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이야기는 확실히 그럴듯하지만, 그가 개종했을 당시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친 기근의 맥락은 고려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부유한 상인이자 매일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내던 월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에 문제가 생겼고, 교회에서 사제이자 신학자로 일하던 친구 중 한 명에게 조언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주 긴 대화 끝에 사제는 월도의 끊임없는 질문에 지쳐서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읽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구절에서 예수께서 부유한 젊은 통치자에게 가서 자신의 소유물을 팔고 와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월도에게 너무나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그는 율법의 글자 그대로를 따랐고, 문자 그대로 자신의 삶을 예수의 명령에 맞추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월도가 리옹의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과 맺은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부유한 상인인 월도는 교회의 후원자이자 평신도 지도자였으며, 사제와 다른 성직자 지도자들과의 그러한 대화, 또는 일련의 대화는 월도가 삶에서 부름의 감각과 씨름하는 동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이 이야기에서 성경은 월도가 자신의 삶을 기독교 신앙의 보다 급진적인 표현으로 개종하기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바로 그 구절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1172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월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과 가진 직접적인 상호 작용의 많은 부분을 생략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월도는 리옹의 동료 상인이었던 절친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월도의 친구가 둘 다 참석한 연회에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과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월도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죽음이 비슷한 방식으로 나를 덮친다면 어떨까? 내 영혼이 그 여정을 준비했을까? 몇 주 동안의 영혼 탐구 끝에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사업적 모험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월도는 부와 개인 소유물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월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초점과 동기는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동력이며, 신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감각에 의해 주도된 신앙과 정체성의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음식은 다시 이 이야기에 등장하며, 월도의 개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월도와 그의 친구를 친구가 죽는 바로 그 순간에 함께 모으는 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존적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월도의 영적 개종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월도의 개종과 발도파 운동의 시작에 대한 신화적 기원을 둘러싼 이 이야기들은 모두 문맹률이 95%가 넘는 문화에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남부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반도, 북중부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에 이르는 영향력 있는 지역에서 성경 전체를 암기한 발도파 설교자들은 순회 사역에 참여했으며, 스토리텔링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짝을 지어 여행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월도의 개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지만, 각각은 후대에게 신앙의 기원에 대해 교육하여 각 신자가 기독교에 대한 해석을 로마 가톨릭과 차별화하는 독특한 요소를 이해하도록 하려는 진지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 운동의 추종자들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살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유럽의 광대한 지리적, 문화적 범위에서 월도의 개종에 대한 여러 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유사한 주제로 평가했을 때, 그것들은 모두 월도가 부와 상대적 사치의 삶을 포기하고, 빈곤의 삶을 받아들이고, 대중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한 결정을 전달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각각 자기 자신을 섬기는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급진적인 새로운 삶으로의 개인적 개종을 나타냅니다.

1172년 리옹의 역사적 맥락에 관해 드러난 사실과 비교해보면,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요소들이 모두 월도의 삶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온 일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위에 인용된 이야기 중 하나에서 전달되었든 아니든, 이 변화는 성경을 조사하고 깊은 영혼 탐구 기간을 거친 후에 일어난다. 이 과정을 통해 월도는 살아 계신 현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되었다.

조지 오턴은 이 이야기들을 분석하면서 월도 자신의 개종에서 두 가지 매우 뚜렷한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그의 삶에서 설명되었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그들에게 스스로 응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마태복음 18장의 성경적 명령을 자신과 추종자들에게 해석하면서 제자가 되라는 부름은 부와 재산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덜어주기 위해 재산과 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월도의 반응은 부활의 생명의 힘을 반영했는데, 그것은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복음 메시지를 스스로 듣고 가난의 서약과 복음의 공개적 선포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도의 삶과 신앙의 증거에서 개혁 이전의 기독교적 사고와 실천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으로 조직된 증거의 시작이 확립되고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이 독특한 증거를 파괴하려는 협력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350년 후 개신교 개혁의 새벽까지 지속되고 우세했습니다.

Waldo를 언급할 때 종종 포함되는 Peter라는 이름은 Waldo의 생전에 나온 어떤 문서에도 Waldo의 이름의 일부로 나열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Peter라는 이름이 Waldo에게 처음 부여된 것은 불과 200년 후인 14세기입니다. 역사가들은 Waldensians에 대한 박해가 절정에 달했을 때 Waldensians가 Peter라는 이름을 부여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Peter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그 이름을 왈도에게 돌려 왈도와 왈도 운동을 합법화하고,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기독교 신앙의 기원과 첫 번째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와 연결함으로써. 초기 교회에 대한 언급과 사도 계승을 통한 운동의 연관성에 대한 암시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주변 문화가 그들을 이단자로 몰아넣고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을 때 박해받는 왈도파에게 힘과 확신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종교 재판과 다른 형태의 박해에 직면하여 왈도파는 당시의 지배 세력에 의해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 교회의 기원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데 위안을 삼았습니다.

사도 계승의 개념과 발도파 신앙의 기원은 이 시리즈의 설교인 *Out of the Shadows of History*에서 더 자세히 탐구됩니다.

이 분은 발도파의 역사를 가르치는 Kevin Frederick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The Roots of Waldo's Conversion*입니다.